“是非長短 내려놓고 화두 타파”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眼中無翳休挑括(안중무예휴조괄)하고 鏡中無塵不用磨(경중무진불용마)어다.

信足出門行大路(신족출문행대로)에 橫按拄杖唱山歌(횡안주장창산가)로다.

唱山歌兮(창산가혜)여!

山是山水是水(산시산수시수)로다.

눈 가운데 티끌 없으니 긁으려 하지 말고 거울 가운데 먼지 없으니 닦으려 하지 말라.

발을 디뎌 문을 나가 큰 길을 행함에 주장자를 횡으로 메고 산 노래를 부름이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금일(今日)은 기해년 동안거 결제일이라.

산문(山門)을 잠그고 삼동결제(三冬結制)에 임하는 대중(大衆)들의 마음자세는 모든 반연(攀緣)과 갈등(葛藤)과 시비장단(是非長短)을 내려놓고 이번 결제기간 동안 반드시 화두(話頭)를 타파(打破)해서 대오견성 하겠다는 각오가 확고해야 함이라.

흉내만 내고 앉아 있는 반딧불 같은 신심(信心)으로는 이 광대무변(廣大無邊)한 부처님 진리의 세계에 도저히 갈 수가 없음이라.

해마다 반복되는 결제와 해제에 빠지지 않는 사부대중(四部大衆)이 가상(嘉尙)하기는 하지만 부처님 법을 배우는 목적은 자기사(自己事)를 밝히는 데 있다.

이번 결제동안 부지런히 정진해서 각자의 화두를 타파하여 확철대오(廓撤大悟)하게 되면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祖師)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그때는 이 사바세계(娑婆世界)가 그대로 불국토(佛國土)가 되고, 팔만사천 번뇌가 그대로 반야지혜(般若智慧)가 되는 것이다.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밥을 먹으나 산책을 하나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여야 할 것이라.

중국 선종의 4대 조사(四代 祖師)이신 도신(道信) 선사 당시에 우두 법융(牛頭法融) 스님이 있었다.

우두 스님이 젊은 시절에 혼자서 정진(精進)을 하고 있노라면, 온갖 새들이 꽃을 물어 와서 공부하는 자리에는 항상 꽃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공양(供養) 때에는 천녀(天女)들이 공양을 지어 올렸다.

하루는 우두 스님이 도신 선사를 찾아뵙고 그간에 공부했던 것을 말씀드렸다. 도신 선사께서 그것을 들으시고는,

“네가 그러한 삿된 소견(所見)을 가지고 어찌 불법(佛法)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시며 직하(直下)에 방망이를 내리셨다.



무릇,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온갖 새가 꽃을 물어 나르고 천녀가 공양을 올렸으니 큰스님 중의 큰스님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불법의 근본진리를 아는 사람이 보건대는, 그것은 몇 푼어치 안 되는 살림살이이다.

우두 스님이 도신선사께 법 방망이를 맞고 분발(奮發)하여 다시 정진(精進)을 하니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 않았고, 천녀들도 공양을 지어 올리지 않았다.

이렇듯 대적삼매(大寂三昧)를 수용하면 모든 성인(聖人)들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천룡팔부(千龍八部)며 귀신 · 선신(善神)들은 더더욱 볼 수 없으며, 온갖 새와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다.

광대무변한 진리의 심오한 세계는 스승 없이 혼자서는 다 알았다 할 수 없기에 반드시 먼저 깨달은 눈 밝은 선지식을 의지해서 점검받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로다.

스승 없이, 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요즈음도 부지기수(不知其數)인데, 그것은 다 외도(外道)의 소견(所見)에 집을 지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무사자오(無師自悟)는 천마외도(天魔外道)다” 즉, 정법을 이은 선지식(善知識)으로부터 점검받은 바 없이 깨달았다 하는 자는 천마이고 외도일 뿐이라고 못을 박아놓으신 것이로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느 스님이 남전(南泉) 선사께서 여쭙기를,

“우두 스님에게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고 천녀가 공양을 지어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하니, 남전 선사께서는

“걸음걸음이 부처님의 계단을 올라간다”라고 답하셨다.

“도신 선사로부터 방망이를 맞은 후,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 않고 천녀들도 공양을 올리지 아니한 때는 어떻습니까?”

“설령 온갖 새들과 천녀가 오지 않는다해도 나의 도(道)에 비하면 실 한오라기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 진리에도 깊고 얕은 세계가 있다.

그러니 여러 대중은 이러한 법문을 잘 새겨듣고서, 공부를 지어가다가 반짝 나타나는 하찮은 경계들을 가지고 살림으로 삼아 자칫 중도(中途)에 머무르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부처님의 정안(正眼)을 밝히는 데 근간(根幹)을 두고서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 산승(山僧)의 스승이신 향곡(香谷) 선사께서 우두 선사의 법문을 들어 산승에게 물으신 적이 있음이라.

“우두 스님이 사조 선사를 친견하기 전에는 천동 천녀가 공양을 지어 올리고 백 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이에 산승이 “삼삼(三三)은 구(九)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면 우두 스님이 사조 선사를 친견한 후로는 천동 천녀들이 공양을 지어오지 않고 백 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도 아니한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이에 산승이 “육육(六六)은 삼십육(三十六)입니다”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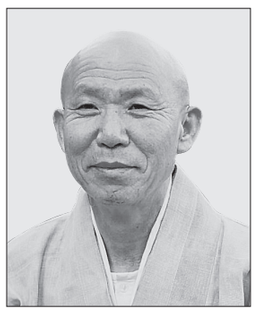
필경(畢竟)에 최고의 진리의 일구(一句) 어떠한 것인고!

橫按拄杖不顧人(횡안주장불고인)하고 卽入千峰萬峰去(즉입천봉만봉거)로다.

주장자를 횡으로 메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천 봉과 만 봉 속으로 들어감이라.

누가 고불당에 먼저 도달하려는가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불조덕광(佛照德光)선사가 백양법순(白楊法順)선사께 물었습니다.

“진불(眞佛) 즉 참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는 곳에 있다.”

“이미 참 부처인데 어찌하여 정해진 곳이 없다는 것입니까?”

“정해진 곳이 있다면 그것은 참 부처가 아니다.”

이 말씀에 불조 스님은 크게 깨쳤습니다.

진불(眞佛)은 고불입니다. 고불(古佛)은 본래부처를 말합니다. 결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래부처자리인 고불당(古佛堂)을 찾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법안문익(法眼文益)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고불당전십마인선도(古佛堂前什麽人先到)니까? 고불당 앞에는 어떤 사람이 먼저 도달합니까?”

“부동보자(不動步者)니라. 발걸음을 움직이지 아니한 자이다.”

산문의 빗장을 걸고 90일 기간 동안 애써 정진해서 공안(公案)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법안문익 선사가 말한 부동보자(不動步者), 즉 발걸음을 움직이지 아니한 자의 낙처(落處)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용담종효(龍潭從曉)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고불당 앞에는 어떤 사람이 먼저 도달합니까?”

“퇴사자(退些子)라. 조금 물러나거라.”

대혜종고선사는 ‘공부인들이 속효(速效)만을 구하지만, 그 속효라는 것이 그릇된 것 인줄 모른다’ 고 탄식했습니다.

속효심은 치구심(馳求心)입니다. 빨리 도를 이루어야겠다는 급한 마음으로 서두르기만 한다면 오히려 병을 일으켜 공부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용담선사는 ‘조금 물러나거라’ 고 하신 것입니다. 공부의 완급(緩急)을 잘 조절하라는 당부라고 하겠습니다.

차암수정(此菴守淨)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고불당 앞에 어떤 사람이 먼저 도달합니까?”

“무안촌옹(無眼村翁)이니라. 눈 없는 촌 노인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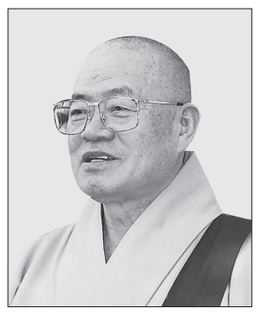
마음마저 푹 쉬었기 때문에 보아도 본 바가 없는 촌 노인처럼 일체 바깥 경계에 절대로 끄달리지 않고 오로지 애써 정진해서 한 철을 보낼 수만 있다면 해제 때 결코 얻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불조덕광선사께서 남겨놓은 고불당 게송의 낙처(落處)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수세계변석(水洗溪邊石)하고, 풍취고전번(風吹古殿幡)이로다. 어사지락처(於斯知落處)인댄, 가필재영산(可必在靈山)이니라.

개울가의 바위 돌 물에 씻기 우고, 고불당의 깃발에 바람이 부는구나. 여기에서 낙처(落處)를 안다면, 반드시 영산회상에 있으리라.

화두 긴하게 잡고 한바탕 공부를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大地山河毘盧體(대지산하비로체)요 蠢動含靈觀音化(준동함영관음화)로다.

日月星宿(일월성숙)은 衆生心(중생심)이요 無邊虛空(무변허공)은 果山心(고산심)이로다.

대지산하는 비로자나불의 몸이요 준동함령은 관음보살의 교화대상이로다.

일월성숙은 중생의 마음이요 가없는 허공은 고산의 마음이로다.

虛空之外 無一物(허공지외 무일물)이요 衆生心外 無一塵(중생심외 무일진)이로다. 豁然頓悟卽正覺(활연돈오즉정각)이요 正覺者卽不見空(정각자즉불견공)이로다.

허공 밖에 한 물건도 없고 중생 마음 밖에 한 티끌도 없도다. 활연히 돈오하면 곧 정각이요 정각한 이는 곧 허공을 못 보도다.

時會大衆(시회대중)은 不除妄想(부제망상)하고 不求眞(불구진)하라!

妄想卽覺悟之本(망상즉각오지본)이요 眞亦在妄想中(진역재망상중)이로다.

心安卽天下太平(심안즉천하태평)이요 心不安卽苦海中(심불안즉고해중)이로다.

諸人(제인)은 緊把繩頭做一場(긴파승두주일장)하라! 言下(언하)에 卽時大悟(즉시대오)하리라.

시회대중은 망상을 제하려고도 하지 말고 진을 구하지도 마라! 망상이 곧 깨달음의 근본이요 진도 또한 망상 가운데 있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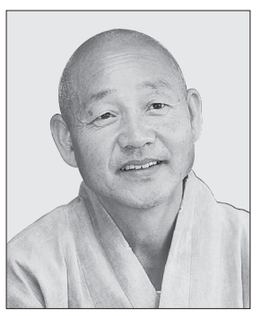
마음이 편안하면 천하가 태평할 것이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곧 고해중이로다. 모든 사람은 화두를 긴하게 잡고 한바탕 공부를 하라! 언하에 곧 크게 깨치리라.

念念(념념)에 釋迦出世(석가출세)하고 步步(보보)에 彌勒下生(미륵하생)이로다.

생각마다 현세불 출현이요 실천하는 것마다 미래불 출현이로다.

본분사 마친 대자유인 되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千尺絲綸直下垂(천척사륜직하수)하니 一波纔動萬波隨(일파재동만파수)로다.

夜靜水寒魚不食(야정수한어불식)하니 滿船空載月明歸(만선공재월명귀)로다.

천자의 긴 낚싯줄 곧게 드리우니 한 물결 일어나니 만 물결 일어나네. 고요한 밤 물은 차가워 고기 물지 않으니 배 가득 허공 싣고 달빛에 돌아오네.

총림대중이 겨울 석 달을 기한으로 동안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불조의 관문을 타파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포단 위에 오뚝이 앉아서 화두타파에 목숨을 걸고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잡다한 세상일을 떠나서 불조의 관문을 타파하는 일은 상근기의 수행자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요, 얕은 물의 적은 고기가 아닌 깊은 바다의 큰 고기를 낚는 일과 같습니다.

거친 번뇌가 잔잔해 지면 미세한 번뇌를 알게 되고, 미세한 번뇌가 흩어지면 본래면목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본래면목을 확연히 깨닫고 활용할 수 있는 수행자를 본분사를 마친 대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나 어리석은 이를 가릴 것 없이, 범부와 성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구족한 본래면목을 찾아 대자유인이 되고 대교화인이 되는 일은 불조의 은혜를 갚고 단월의 은혜를 갚는 일이며, 밥값을 하는 일입니다.

雲捲秋空月印潭(운권추공월인담)하니 寒光無際與誰談(한광무제여수담)고 豁開透地通天眼(활개투지통천안)하니 大道分明不用參(대도분명불용참)이로다.

구름 걷힌 가을 하늘 달이 물에 비치니 서늘한 빛 끝없음을 누구와 이야기할꼬?

천지를 꿰뚫는 안목 활짝 여니 대도가 분명하여 참구함을 쓸 게 없도다.